금융위원회	보도자료	금융감독원

보도시점 2026. 9. 16. (수) 15:00 배포 2026. 9. 16. (수) 9:00

PG업권 보안 리스크를 빈틈없이 점검하고 AI 보안위협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.

- 프런티어 AI 보안위협 금융권 상황대응반 제6차 회의 개최-

- ▸ 최근 PG사 침해사고를 계기로 PG업권 보안 리스크·대응체계 점검
- ▸ PG·카드사 등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·협조를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 강조
- ▸ AI를 활용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정부 정책 적극 참여 당부
- ▸ PG업권 보안·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적극 발굴·검토

[개요]

'26.9.16.(수) 금융위원회는 **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**로 금융감독원, 금융보안원, 여신금융협회, 핀테크산업협회, 카드사(2사), PG(4사) 등과 함께 「**프런티어 AI 상황대응반**」 **6차 회의**를 **개최**하였다. 금번 회의는 AI 모델 성능이 **비약적**으로 **향상**됨에 따라 AI가 해킹 등에 **악용**될 **우려**가 **높아지는 가운데** PG업권의 **보안 리스크**를 **긴급 점검**하고 향후 **대응방향**을 **논의**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PG사는 금융회사(카드사 등)와 **가맹점** 간 **전자금융거래**를 **중계**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, 결제정보 등 **개인신용정보**를 **처리**하게 된다. 이에, **PG사**에서 **침해사고**가 **발생**하는 경우 **대규모 개인신용정보 유출**, **카드 부정결제** 등 직접적인 **소비자 피해**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, 금융회사 수준의 **철저한 보안관리**가 **중요**하다.

- **(일시/장소)** '26.9.16.(수) 15:00 / 정부서울청사 별관
- **(참석)** (금융위원회) **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**(주재), 금융안전과장 등
  (금융감독원) 디지털금융총괄국장, 전자금융검사국장, 중소금융검사3국장 등
  (금융보안원) 사이버대응본부장, 침해대응부장
  (협회) 여신금융협회, 핀테크산업협회 / (카드·PG사) 6개사
- **(논의)** ①최근 금융권 해킹 추이, ②PG업 피해발생시 대응체계 등

[회의 주요내용]

금일 회의에서는 최근 **금융권 해킹 동향**을 **점검**하고,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**PG업권**의 **보안 리스크** 등을 심도 있게 **논의**하였다. 특히, PG업권의 **개인신용정보 보유·관리** 현황, PG업권에서 **발생가능**한 **주요 침해사고** 유형,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**사고발생** 시 **대응체계** 등에 대해 **중점 점검**하였다.

PG업권은 **업무 특성**상 이름, 생년월일, 결제정보 등 **다양한 종류의 개인정보**를 **처리**하고 있어 **정보 유출** 시 부정결제 등 직접적인 **소비자 피해**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.

또한, 최근 PG업권에 대한 **침해사고 양상**도 다각도로 **진화**하고 있다. **PG사 자체**의 보안취약점을 **직접 악용하는 방식**뿐만 아니라, 상대적으로 **보안**이 **취약한 가맹점**의 보안취약점을 **악용**한 **우회 공격**도 **빈발**하고 있다.

회의 참석자들은 PG업권의 보안리스크 대비를 위한 **다양한 방안**을 논의하였다.

첫째, PG사는 **여러 금융회사** 및 **가맹점**과 **시스템**을 **연계**하고 있는 만큼, **자체 시스템**에 대한 **보안취약점**뿐만 아니라 가맹점 등 **외부 접점**에서 발생할 수 있는 **보안 위협**까지 **종합적**으로 **고려**하여 **침해사고 탐지·대응체계**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.

둘째, 카드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**2차 피해가 발생**할 수 있으므로, **소비자 피해 가능성**을 최소화하기 위해 **PG업권**에서 **처리하는 정보**를 **최소화**하고 **불필요**하거나 **과도한 정보**를 **수집하지 않도록 해야**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.

셋째, PG사에서 **정보유출 사고**가 **발생**한 경우 신속한 **소비자 피해 예방**을 위해 **PG사·카드사·관계기관**(금융감독원·금융보안원 등) 간 보다 **긴밀한 협조**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. 특히, **카드정보 유출** 시 신속히 카드사와 공유하여 **이상거래탐지시스템**(FDS) **등록**, **이상거래·부정결제 모니터링** 강화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**▲신속한 고객 안내**, **▲카드 재발급**, ▲소비자 **피해 전액보상** 등 적극적인 **소비자 보호조치**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**중요**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.

금융위원회 **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**은 "PG사는 **금융회사**에 비해 **상대적**으로 **규모**가 **작지만** 다수의 **금융회사, 가맹점**과 연결되어 **대량**의 **개인신용정보**를 **처리**하고 있는 만큼, **보안사고**로 인한 **소비자 피해**가 발생하지 않도록 **철저한 보안관리**가 **중요**하다."고 강조하였다.

이어 "**침해사고 발생시**에는 카드사, 관계기관과 **긴밀히 협력**하여 **소비자 피해 예방조치**가 **즉각** 이루어질 수 있도록 **대응체계**를 **지속 점검·보완**해야 한다."고 강조하면서, "금융분야는 **오픈뱅킹, 마이데이터** 등 API를 통해 **시스템 연계성**이 **높은 만큼**, **금융 생태계**에 **참여**하는 **모두**가 **보안 강화**에 힘써야 한다."고 하였다.

아울러, "AI를 활용한 **침해위협**이 **현실화**되고 있는 상황에서 PG업권도 **보안위협**에 **철저히 대비**할 필요가 있다"고 언급하며, "지난 9월 3일 실시한 **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**부터 **전자금융업자**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을 **확대**한 만큼, **향후**에도 이에 **적극 참여**하는 한편, 금융AI보안연구소·지원센터, 금융 AI 보안 가이드라인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도 적극 활용해 줄 것"을 당부하였다. 마지막으로 "**금번 회의**를 계기로 **PG업권**의 **보안체계** 및 **소비자 보호체계**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, **제도개선 사항**도 **적극 발굴·검토**해 나가겠다."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	책임자	과 장	김태훈	(02-2100-2970)
		담당자	사무관	김영준	(02-2100-2573)
			사무관	김해은	(02-2100-2979)
	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	책임자	국 장	이 석	(02-3145-7120)
		담당자	팀 장	노경록	(02-3145-7130)
	금융감독원 전자금융검사국	책임자	국 장	심은섭	(02-3145-7160)
		담당자	팀 장	이승훈	(02-3145-7154)
	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3국	책임자	국 장	김익남	(02-3145-8810)
		담당자	팀 장	이진우	(02-3145-8805)
	금융보안원 침해대응부	책임자	부 장	김기철	(02-3495-9400)
		담당자	팀 장	장운영	(02-3495-9420)